

옛 영산포역에 철도공원 이어 문화체험관 들어선다

나주시, 문화·체험·전시 복합건축물 29억원 들여 내년 착공 40여년 전 모습 그대로 건립... 영산포역역 관광활성화 기대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호남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영화를 누렸던 옛 영산포역이 문화·체험·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로 새 단장한다.

나주시는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폐쇄된 영강동 소재 옛 영산포역사(부지 741㎡)를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체험관은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연면적 978.75㎡,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1969년 신축 당시 모습의 영산포역 복원을 골자로 역사·가차 체험관, 종합전시관, 행사관, 문화센터, 전망시설 등이 들어선다.

체험관은 옛 영산포역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기 조성된 철도공원, 인근 관광자원과 더불어 영산포역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포역은 1913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뒤 한국전쟁때 소실됐다가 1969년 신축돼 호남지역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렸다.

2001년 7월 호남선 복선 전철화 공사 완료에 따른 선로 이설로 나주역과 통합돼 폐역됐다. 2004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영산포 철도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분야 균형사업 선정에 힘입어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공원 내 관광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폐철길을 활용한 600m구간 레일바이크(3대)와 상징게이트, 야외공연장, 포토존, 초화원 등이 조성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레일바이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새 단장을 마친 철도공원과 함께 내년 착공을 앞둔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이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시 영강동 옛 영산포역사를 1969년 신축 당시 모습으로 복원,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한다. 1969년 신축 당시 영산포역 모습. (나주시 제공)



담양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지역상권 살리기 연말까지 연장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종이 50만원, 모바일 50만원)이다.

종이상품권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윌뱅크, 비플제로페이, 체크코피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은 종이형 1300여 개소, 모바일 720개소로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총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더불어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못자리용 상토 내년부터 직접 생산업체만 공급

함평군, 보조금 입찰 자격 강화

함평지역 못자리용 상토 부정공급 의혹(광주일보 4월24일자 12면)과 관련, 함평군이 내년부터 직접 생산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한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못자리용 상토 보조사업 입찰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에서 상토 공급 업체로 선정된 후 농가 공급에는 입찰에서 탈락한 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상표의 상토가 납품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함평군은 또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면 입찰 참여업체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지역업체 기산점 부여하는 것도 민원발생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돼 이의 개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이번에도 부정공급 의혹을 받은 것은 상토 제품이 같은데 2개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이 중 지

역업체 기산점을 받은 1곳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자신이 생산한 상토를 탈락 업체의 포장지에 담가 농가에 공급, 말썽이 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은 회사들이 포장지만 만들어 입찰에 들어오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입찰 공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직접 생산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농협과 공동으로 못자리용 상토 공급 사업을 진행했다. 총 사업비 7억3125만원(군

비 70%,농협 20%, 농가 10%)을 들여 총 면적 6500ha에 달하는 못자리용 상토를 구매하는 보조사업이다.

함평군은 지난 2월 못자리용상토선정추진위원회 회를 열어 4개 공급업체 6개 제품을 선정했다. 4개 공급업체 중 3곳은 전남지역 업체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공급된 상토가 선정위에서 선정된 제품이 아닌 탈락업체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부정공급 의혹이 일었다.

함평군은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함평경찰은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최근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황윤하 기자 hwang@kwangju.co.kr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장성군, 10월 말까지 연장

장성군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 중이다.

지난 4개월 동안 이용 건수는 4259건으로, 지난해 보다 약 30% 증가했다.

장성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누구나 10월 말까지 1주일 동안 하루 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하면 다시 첫날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농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한전KPS, 노인 가구 200곳 '누워서 불 끄는 전등 리모컨' 보급

나주시는 한전KPS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의 일상 안전을 위해 누워서도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전등 리모컨 스위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나주시 지역 고령자의 집안 내 낙상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규 복지사업으로 발굴했다.

나주시는 연말까지 20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한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독거노인 등 200가구를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와 리모컨 스위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한전KPS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1600만원)을 후원한다.

리모컨식 전기 스위치가 보급되면 굳이 전등불을 끄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불이 꺼진 후 어두운 방 안에서의 사고 확률을 낮추고 고령자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 기준 나주시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21.6%로 초고령사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원인 중 약 60%가 주택 내 침대,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낙상(미끄러짐)에 의한 골절이다.

낙상으로 인한 노인 골절 사고는 치료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치료를 위해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감소해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와 한전KPS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누워서도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전등리모컨 스위치를 지원한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G.O. Auction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